한국합섬, 주가상승률 99.4% “1위”

흑자전환 및 영업이익 증가기업 두드러져 … 한독약품・S-Oil도 양호

한국합섬이 2003년 흑자전환에 성공함에 따라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해 경쟁기업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.

증권거래소는 2003년 12월 결산법인 중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10사를 대상으로 매출실적, 영업실적 및 순이익과 주가를 조사한 결과 실적호전 기업의 주가상승율이 시장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했다.

매출액증가, 흑자전환 및 영업이익증가, 흑자전환 및 순이익 증가기업은 전체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흑자전환 및 영업이익 증가기업의 주가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다.

한국합섬은 2003년 영업이익 258억원으로 흑자전환을 했고 2004년 1월2일 1주당 가격이 1600원에서 4월2일 3300원으로 99.4% 상승해 주가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.

화학기업으로는 한독약품이 2003년 영업이익 345억원 흑자로 뒤를 이었으며 1주당 가격은 72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66.7% 상승했다.

SK도 3위에 올랐다. 2003년 영업이익 6713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1주당 가격은 2만6500원에서 4만2500원으로 60.7% 상승했다.

반면, 최대 주가하락률을 기록한 화학기업은 대영포장으로 2003년 영업이익 13억원 적자로 전환했으며 1주당 가격이 110원에서 80원으로 27.3% 하락했다.

다음으로 2003년 영업이익 7억8000만원 적자전환을 기록한 고제가 1주당 가격이 520원에서 385원으로 26% 하락했다. 유니켐이 2003년 영업이익 9억3600만원 적자전환에 따라 1주당 가격이 3750원에서 2780으로 25.9% 감소해 뒤를 이었다. <오영희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4/12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